

#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 이용안내

###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06

JUNE 2015

**토요일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2015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일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June

2015년 6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우리민속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한마당



## 6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899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존회의 '서울나들이'  
'A day out in Seoul' by Preservation Association of Jinju Geommu (sword danc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06. 06.



제900회  
차명희와 정우예술단의 나들이 '청유(淸遊)'

'Enjoying Nature' by Cha Myeonghui & Jeongwoo Art Company

06. 13.



제901회  
김지애의 가야금병창이야기 '젊은예인'

'Young Performer' - Gayageum byeongchang by Kim Jiae

06. 20.



제902회  
이미주와 화동정재예술단의 동행 "꽃과 나비되어..."

'Like a flower and a butterfly' by Lee Miju & Hwadongjeongjae Art Company

06. 27.

## 6월 일요일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June,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5년 6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73회  
탈춤의 향연 양주별산대놀이

Yangju Byeolsandaenori - A feast of mask dances

06. 07.



제374회  
장이 열렸다 놀아보세!

A market is open! Let's have fun!

06. 14.



제375회  
수레, 세상에 첫발을 딛다.

Surae, its first step towards the world

06. 21.



제376회  
서울 풍물굿 한마당

Hurray for Seoul Pungmulgut

06. 28.

우리민속 06 JUNE 2015

# 한마당



#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보존회의 '서울나들이'

'A day out in Seoul' by Preservation Association of Jinju Geommu (sword danc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2015. 06. 0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춤은 진주검무 보존회에 전해오는 교방춤의 하나로 궁중에서 민간으로 전해지는 것 중 역사가 오래된 춤이다.

궁중무용 중 대표적인 독무인 '춘앵전'과 놀이형식의 군무인 '포구락', 정중동과 절제미의 극치인 '살풀이', 기교적인 발짓이 멋스러운 '태평무', 민속춤의 집대성 '승무', 애국행사에 헌무로 올리는 '진주검무'와 양성옥 안무의 '장구춤'으로 우리의 전통무용 중 대표적인 춤으로 구성하였다. 궁중무용과 민속무용, 독무와 군무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전통무용의 격과 멋, 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one type of 'Gyobangchum' passed down to 'Jinju Geommu Preservation Association', whose history is longest among the dances spread from the royal court to ordinary people.

Starting with 'Chunaengjeon' - a typical solo dance among court dances, the show comprises 'Pogurak' - a group dance with fun added, 'Salpuri' with ultimate beauty of moving in stillness and being moderate, 'Taepyeongmu' with sophisticated footsteps, 'Seungmu' - a compilation of traditional dances, 'Jinju Geommu' presented to celebrate a patriotic ceremony, and 'Jangguchum' by Yang Seongok.

A splendid display of court dances, traditional dances, solo and group dances will for sure bring fun and excitement as well as the beauty of traditional dances to the show.

## 공연순서 PROGRAM

- 01 춘앵전 Chunaengjeon
- 02 포구락 Pogurak
- 03 살풀이 Salpuri
- 04 태평무 Taepyeongmu
- 05 승무 Seungmu
- 06 진주검무 Jinju Geommu
- 07 장구춤 Jangguchum



**대표** 김태연, 유영희(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예능보유자)

**출연** 김소형, 한순자, 조선희, 정명숙, 김해경, 임미향, 강연아, 박현진, 양선희, 김혜자, 최형선, 백진희, 김진정, 김영신, 최성희, 이지은, 백미진, 김영애, 이주리, 서희정, 박지애, 이도경, 임동연, 이혜경, 고은비

# 차명희와 정우예술단의 나들이 '청유(淸遊)'

'Enjoying Nature' by Cha Myeonghui & Jeongwoo Art Company

2015. 06. 1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춤과 함께 떠나는 유람이다. 맑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염원을 담은 승무로 첫 무대를 열고, 다음으로 화사함과 흥취가 느껴지는 풍류의 춤인 진주교방굿거리춤과 푸르름 마저 느껴질 4인의 구음검무에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 눈뜨는 대목'과 부채춤, 그리고 무심의 경지로 천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살풀이춤과 호방하고 역동적인 사자놀음과 진도북춤으로 대미를 구성했다. 무대의 춤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이야기가 있는 멋스런 춤 유람을 경험할 수 있다.

This show is like a journey on a one green day, seasoned with beautiful dances. It kicks off with 'Seungmu' that expresses a wish to return to a state of original purity. The show also presents gorgeous and exciting 'Jinju Gyobanggutgeorichum', 'Gueumgeommu' by four dancers, and 'Pansori Simcheongga' that comes from the scene where Simbongsa regains his sight while the big finale comes with 1000-year lasting 'Salpurichum' that exudes a sense of being absent-minded, and dynamic 'Sajanoreum & Jindo bukchum'. The show will for sure bring the audience together to make them feel like they are on a journey accompanied by stories and dances.

## 공연순서 PROGRAM

- 01 승무 Seungmu
- 02 진주교방굿거리춤 Jinju Gyobanggutgeorichum
- 03 구음검무 Gueumgeommu (sword dance)
- 04 판소리 Pansori
- 05 부채춤 Buchaechum
- 06 살풀이 Salpuri
- 07 사자놀음과 진도북춤 Sajanoreum & Jindo bukchum



**대표** 차명희 (사단법인 한국춤 예술센터 이사장)  
**출연** 차명희, 박찬옥, 정유진, 안지현, 신정화, 박복단, 염경자, 박희숙, 정금순, 김정희, 김은, 이은주, 이춘희, 이봉주, 김순임, 윤정우, 김길숙, 김백광, 윤광현, 김성희, 이형근, 최브림, 김애숙

# 김지애의 가야금병창이야기 '젊은예인'

'Young Performer' - Gayageum byeongchang by Kim Jiae

2015. 06. 2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김지애가 들려주는 가야금병창이야기를 준비했다.

가야금병창은 창(唱)에 가야금 연주가 곁든 연주형태로 단가나 판소리, 민요를 가야금으로 반주하며 남도음악의 창법으로 부르는 것으로, 산조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이번 무대는 12현 가야금 기악창작곡, 병창 연주뿐만 아니라 25현 가야금 기악 창작곡, 병창 창작곡까지 12현과 25현 가야금을 이용하여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로 꾸민다. 12현 가야금 창작곡 '침향무'로 무대를 열고, 25현 병창 팔도민요 모음곡으로 무대를 마무리 한다.

This show presents a 'Gayageum byeongchang' story by Kim Jiae, the bearer of Gayageum sanjo & byeongchang which i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3. Gayageum byeongchang is a form of gayageum performance combined with singing, where 'Danga', 'Pansori', and 'Minyo (folksongs)' are sung in Namdo style to the gayageum accompaniment. It is designat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3 along with sanjo. The show presents a wide range of traditional and newly created gayageum performances from 12-string gayageum instrumental and byeongchang pieces to 25-string gayageum instrumental and byeongchang pieces. The show kicks off with the 12-string gayageum creative musical piece 'Chimhyangmu' and ends with 25-string gayageum byeongchang 'A Collection of Paldo Folksongs'.

## 공연순서 PROGRAM

- 01 12현 가야금 창작곡 '침향무' 'Chimhyangmu', 12-string Gayageum musical piece
- 02 단가 中 녹음방초 'Nogeumbangcho' from 'Danga'
- 03 흥보가 中 '제비점고, 제비노정기' 'Jebijeomgo, Jebinojeonggi' from 'Heungboga'
- 04 가야금병창 신민요 '내고향의 봄, 봄노래, 꽃타령'  
Gayageum byeongchang sinminyo 'Spring in my hometown, Spring song, Ggotaryeong'
- 05 25현 독주 '황금산의 백도라지' 25-string solo performance - 'Hwanggeumsan's Baekdoraji'
- 06 25현 합주 '캐논변주곡, Hey jude, Let it be, I want to hold your hand, ObLaDi, ObLaDa'  
25-string ensemble - 'Canon Variation, Hey Jude, Let it be, I want to hold your hand, ObLaDi, ObLaDa'
- 07 25현 병창 '팔도민요모음곡' 25-string byeongchang - A Collection of Paldo Folksongs



**대표** 김지애(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연** 박현수(고수), 최하빈, 민세미, 하태현, 유해리,  
박서연, 권자영, 이산

# 이미주와 화동정재예술단의 동행 “꽃과 나비되어...”

‘Like a flower and a butterfly’ by Lee Miju & Hwadongjeongjae Art Company

2015. 06. 2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미주와 화동정재예술단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꽃과 나비되어 함께 동행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판으로 선보인다.

첫 무대는 화려하고 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주는 궁중무 무산향을 선보인다. 이어서 향발이라는 작은 타악기를 양손 손가락에 끼고 치면서 춤추는 향발무와 산조가락에 맞추어 추는 부채산조춤 연(連), 큰북을 중앙에 놓고 사방에서 용이 여의주를 어르듯 북을 치면서 춤추는 무고, 한을 담은 아름다운 자태로 하얀 살풀이 수건에 마음을 닦아 한을 풀어내는 몸짓이 극치를 이루는 벽사정재만류 살풀이춤이 이어진다.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발디딤 새가 돋보이는 태평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공연의 태평무는 벽사 정재만에 의해 계승된 춤을 군무로 구성하고 '큰 태평무'로 명명한 춤으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Lee Miju & Hwadongjeong Art Company, as if connected like a flower and a butterfly, present a beautiful array of dances.

The show starts with the royal court dance 'Musanhyang', followed by 'Hyangbalmu' involving a dancer with a small percussion instrument called 'Hyangbal' with his/her fingers, 'Yeon' - a fan dance performed to 'Sanjo' rhythms, 'Mugo' performed to the drum accompaniment and around a big drum placed in the middle, and the 'Jeong Jaeman's style of salpurichum' with its beautiful gestures through which sorrow pours out. While 'Taepyeongmu' normally shows off its footsteps that express a wish for the peaceful country, 'Taepyeongmu' during this show will stand out through a group dance called 'Keun Taepyeongmu' originating from 'Jeong Jaeman' style of dances.



## 공연순서 PROGRAM

- 01 무산향 Musanhyang
- 02 향발무 Hyangbalmu
- 03 연 Yeon
- 04 무고 Mugo
- 05 살풀이 Salpuri
- 06 큰태평무 Keun taepyeongmu



**대표** 이미주(정재연구회 화동정재예술단 단장)  
**연출** 이미주 **사회** 김영숙(정재연구회 예술감독)  
**출연** 이미주, 홍민정, 문경민, 이혜민, 장하림, 이소영, 유가에, 이가영, 조현정, 이한나, 오수아, 김서경, 이서원, 윤서윤, 최유진, 김민서, 유다연  
**반주** 대금: 정동연, 피리: 이한석, 해금: 김우정, 가야금: 이혜인, 아쟁: 이건우, 박&징: 이승백, 장구: 정부교

# 탈춤의 향연 양주별산대놀이

Yangju Byeolsandaenori - A feast of mask dances

2015. 06. 07.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대한민국의 대표 탈놀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양주에서 전승되어 오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를 선보인다. 산대놀이란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로 서울·경기 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놀이이다. 이 놀이는 약 250여 년 전부터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칠월 백중, 팔월 추석 등 크고 작은 명절과 비가 오길 기원하는 기우제 행사 때에 주로 공연되었다. 놀이는 전체 8과장 8경으로 구성되었지만 오늘 공연은 깨끼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제2과장 움중과 상좌, 서민생활의 애환과 사회의 타락 상을 보여주는 제5과장 3경 애사당 법고놀이, 타락한 권력의 한 부분을 풍자한 제7과장 2경 포도부장놀이, 탈을 착용하지 않고 추는 탈춤으로 출연하는 인물들의 개인 춤사위를 재구성하여 참작한 모듬깨끼를 보여줌으로써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The show presents 'Yangju Byeolsandaenori' - a typical Korean mask dance of Yangju, Gyeonggi-do designat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 Sandaenori refers to a mask dance of the central part of the country which is an offshoot of Sandaedogameuk enjoyed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It is a folklore activity that brings together dances, pantomimes, well-wishing remarks and jokes. Sandaenori has been in place for around 250 years to especially celebrate Buddha's Birthday in April, Dano in May, Baekjung in July, and Chuseok in August, and has also been performed during rituals for rain. It will be a lot of fun to watch the Gwajang 2 'Omjung & Sangjwa', the Gwajang 5 Gyeong 3 'Aesadang Beobgonori' that reveals the joys and sorrows of ordinary people as well as social corruption, the Gwajang 7 Gyeong 2 'Podobujangnori' that satirizes corrupt power, and 'Modumggaeggi' - a mask dance created by restructuring dancing steps of performers with no masks on, among the entire 'Nori' composed of 8 Gwajangs & 8 Gyeongs.

## 공연순서 PROGRAM

- 01 움중과 상좌 Omjung and Sangjwa
- 02 애사당 법고놀이 Aesadang Beobgonori
- 03 포도부장놀이 Podobujangnori
- 04 모듬깨끼 Modumggaeggi



**대표** 김순옥(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장)  
**연출** 김순희(중요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예능보유자)  
**출연** 석종관, 김순홍, 박기운, 유명선, 손춘식, 이상근, 고정민, 박진현, 한은옥, 이윤희, 이수현, 이용원, 이옥중, 김동현, 손은옥, 현바름, 김현수, 김장우, 윤동준, 최수지, 권순창



# 장이 열렸다 놀아보세!

A market is open! Let's have fun!

2015. 06. 14.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놀이'의 장으로 소리 & 리듬 & 판 예술단 오산(五山)에서 국악의 창작과 전통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국악 중에서 최고로만 손꼽히는 장르들을 모아 관객과 연주자들이 함께 놀고, 즐기며, 웃고,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통 음악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리치며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무대는 힘있는 동작과 가락이 특징인 모듬북 퍼포먼스 '비(鬮)'를 선보이며 이어서 사물놀이 장단을 응용하여 새로운 가락의 변화로 재미를 더한 창작 사물놀이 '가온', 우리네 삶을 노래하는 판소리, 한국의 미와 멋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진도북춤, 연희의 하이라이트 노리 '판'까지 관객과 함께 한바탕 어우러지는 공연이 될 것이다.

This is 'Nori' created by the Sori & Rhythm & Pan Art Company OSAN (Five Mountains) combining traditional gukak with creativity, through which everyone is brought together to have fun.

This 'Nori' that brings together the best genres of Korean gukak will offer the audience an opportunity to play, laugh, communicate and engage with performers. The show kicks off with the modeumbuk performance 'Bi(鬮)' that displays powerful moves and rhythms. The show will for sure serve as a platform for the audience and performers to get together and enjoy, ranging from the creative Samulnori 'Gaon' to 'Pansori' that narrates our life story to 'Jindo bukchum' that expresses the beauty of Korea in the most beautiful way to Nori 'Pan' - the very climax of the show.



## 공연순서 PROGRAM

- 01 모듬북 퍼포먼스 '비(鬮)' Modeumbuk performance 'Bi (鬮)'
- 02 창작 사물놀이 '가온' Creative Samulnori 'Gaon'
- 03 판소리 Pansori
- 04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5 노리 '판' Nori 'Pan'



대표 최형욱 (소리 & 리듬 & 판 예술단 오산(五山)대표)  
출연 최형욱, 라지혜, 김은선, 김민섭, 이혜빈,  
구한솔, 김보미, 이호윤

# 수레, 세상에 첫발을 딛다.

Surae, its first step towards the world

2015. 06. 2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전통연희를 기반한 창작 작품들로 삶의 웃음을 주고 나아가 전통음악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작품은 재담과 문굿 진풀이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음악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길을 나서다'는 길을 나서서 일어나는 일이나 감정을 장구와 그 외 국악 타악기로 표현해낸 곡이다. 또한 창작 판소리와 춤으로 관객과 한층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한 '끌림 여운이 머물며', '만남의 모퉁이에 서다'는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곡인 '어울림'은 마당의 극적인 요소를 넣어 전통 타악의 꽃인 사물판굿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how presents tradition-based performances that give the audience laughs and an opportunity to share feelings while listening to traditional music.

The music from the first part of the show brings performers together with the audience through jokes, mungut, jinpuri, etc. It is followed by 'Hit the road' that describes incidents or feelings encountered while on the road by playing 'janggu' and other percussion instruments.

In addition, 'Long lasting feeling of attraction' and 'On the brink of meeting each other' serve as a space where the audience enjoy creative 'pansori' and dances. The final performance 'Eoullim' will get the audience more familiar with 'samulpangut', the flower of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 공연순서 PROGRAM

- 01 수레 문을 열다 Open the Surae door
- 02 길을 나서다 Hit the road
- 03 끌림 여운이 머물며 Long lasting feeling of attraction
- 04 만남의 모퉁이에 서다 On the brink of meeting each other
- 05 어울림 Eoullim (In good harmony)



**대표** 장주영 (창작연희프로젝트 '수레' 대표)  
**연출** 양태양 **기획** 조태욱  
**출연** 장주영, 양태양, 조태욱, 박상득, 이정목,  
 노민우, 안소은

# 서울 풍물굿 한마당

Hurray for Seoul Pungmulgut

2015. 06. 28.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사라져 가는 마을농악을 현재 서울에서 되살리고자 2000년부터 시작한 도시형 풍물굿인 서울풍물굿으로 12거리 중 일부이다.

서울풍물굿은 각 지역의 독특한 연희형식을 창조적으로 도입하고 마을굿의 정신인 대동과 나눔의 내용을 굿 형식으로 다듬어 삶과 놀이,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창작 풍물굿을 선보여 왔다. 각 거리들은 내고 달아 맺고 푸는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 내면에 있는 신명을 움직이게 하고자 했다. 각 거리에 대한 해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기고 참여하는 어울림의 민속 한마당이 될 것이다.

This show is part of Seoul Pungmulgut 12 geori whose history dates back to the year 2000 that was launched to bring back disappearing 'maeul nongak' to contemporary Seoul.

'Seoul Pungmulgut' introduces the unique performance style of each region and add 'Daedong & Nanum' - the spirit of 'maeul gut' to create a 'pungmulgut' that combines life with play and art with culture. Each geori has a narrative structure to bring excitement out of people. A description of each geori will make it easier for all families to enjoy the show.

## 공연순서 PROGRAM

- 01 입장굿 Ipjanggut
- 02 판씻이굿 Panssisigut
- 03 내달이굿 Naedarigut
- 04 본때보이기굿 (풍류, 버꾸놀이 등) Bonddaeboigigut (pungryu, beoggunori, etc.)
- 05 어울춤굿 Eoulchumgut
- 06 영산놀이굿 Yeongsannorigut
- 07 해침굿 Hechimgut



**대표** 노수환 (사단법인 신명나눔 이사장)

**출연** 강익정, 김유리, 하소리, 이은숙, 이상령, 노영주, 최현경, 이묘순, 정선미, 윤영숙, 홍영희, 이순라, 이귀순, 이란지, 차영숙, 이은순, 전순애, 김후남, 박복순, 양미행, 김진희, 신윤정, 최영아, 전선하, 김지목, 이주원, 김현수, 노태동

